『종교와 문화』 제 42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2. pp. 1-32.

‘하느님’ vs ‘하나님’ 논쟁의 재해석
: 기독교 용어 통일의 단초*

손 은 실**

Ⅰ. 들어가는 말: 기독교 신명(神名)의 불일치 문제
Ⅱ. ‘하느님’ VS ‘하나님’ 논쟁사 개관과 재해석
1. 기독교 신명(神名) 번역을 둘러싼 논쟁사와 한글 표기법의 변천
2. 개신교 선교사들의 신명 번역 전략
3. 한국인의 전통적 ‘하느님’ 신앙에 대한 선교사들의 이해
Ⅲ. 해방 이후 ‘하나님’ 혹은 ‘하느님’ 지지 논거 개관
Ⅳ. 기독교 신명 통일을 위한 후보로 ‘하느님’을 지지하는 이유
Ⅴ. 나가는 말: 기독교 용어 통일을 위한 제언

Ⅰ. 들어가는 말: 기독교 신명(神名)의 불일치 문제

서양 언어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교파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다시 말해 가톨릭[1],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 모두 영어로는 God, 불어로

* 이 논문의 초안은 2022년 1월 21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신한국인문학 집담회에서 발표되었다. 이후에 조금 더 발전시킨 논문을 동 대학교 종교학과 콜로퀴움과 동서그리스도교문헌연구소 제17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발표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과 모든 참석자와 피드백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부교수

1) 이 글에서 ‘가톨릭’은 우리말로 ‘천주교’라고 불리는 로마가톨릭교회를 지칭한다. 기독

는 Dieu, 독일어로는 Gott라 부른다. 그러나 기독교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 전파되면서 전통적 신관과 기독교 신관 사이의 충돌로 인해 신명 번역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 중국에 온 선교사들의 견해는 크게 셋으로 나뉘었다. 가톨릭 선교사들은 성서의 신을 天主로, 개신교 선교사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각각 上帝와 神으로 번역했다.[2]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중국은 여전히 신명 번역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의 한자어 신명 번역은 한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성서 번역사를 보면, 기독교 전래 초기에는 한자어 신명 중 하나인 상제가 사용되기도 했고, 대일(大日), 데우스(음역)와 같은 다양한 번역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메이지역(1887년) 성서부터는 교파에 상관없이 일본인에게 친숙한 말인 가미(かみ, 神)가 사용되고 있다.[3]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번역성서를 출판하면서, 가톨릭의 '천주'도, 개신교의 '하나님'도 아닌 제3의 대안, 즉 '하느님'을 채택했다.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느님'을 사용한다. 하지만 개신교는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고수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과 신자들이 하나의 신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둘 중 어느 것으로 통일해야 할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운 세대의 언어 감각에 맞추어 번역 출판한 『새한글성경』(2021년 11월)은 개신교의 신명인 '하나님'을 고수했다.

같은 경전[4]을 읽고, 같은 신을 믿고, 같은 신조를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서로

교 역사에서 '가톨릭'은 여러 용례를 가진다. 이에 대해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사도신경 강해설교』, 손은실 역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209, 주 55를 보라.

2) Norman J. Girardot, *The Victorian Translation of China: James Legge's Oriental Pilgrim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276-77. 중국에서의 신명 번역 논쟁에 관해서는 다음 두 논문을 참고하라. 설충수, 「『만국공보(萬國公報)』에 나타난 19세기 중국 개신교인의 신명(神名) 문제」, 『장신논단』 40 (2011): 143-166; 오동일, 「제임스 레그의 "역명 논쟁"과 중국 선교 이해」, 『선교와 신학』 51 (2020): 137-164.

3) 일본에서 기독교 신명이 일본인에게 친숙한 말인 '카미'로 정착되는 데는 번역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J.C. Hepburn (1815-1911)의 영향이 컸다. 하마지마 빈, 「귀츨라프역 일본어 요한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번역어 재고」, 김남구 번역, 『성경원문연구』 38 (2016), 251.

다른 이름으로 신을 부른다. 게다가 신자들 자신은 물론 일반인들도 개신교와 가톨릭이 서로 다른 종교인 양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서로 다른 신명의 사용이 이런 경향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더구나 이런 불일치는 성서의 가르침(요 17:11, 21~23)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과연 일치의 길은 없을까?

이 글에서 필자는 우리말 기독교 신명 번역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쟁을 개관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하느님’이 기독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언중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기독교 신명임을 제안할 것이다. 그런데 신명 번역은 번역 이론, 종교사, 문화사, 신학 등 다양한 차원의 함의가 연계된 문제다. 하지만 선행연구사[5]를 검토해 보면, 이러한 복합성과 다층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따라서 필자는 신명 번역을 둘러싼 논의의 다양한 층위를 살피면서 한국어 기독교 신명의 두 선택지 가운데 ‘하느님’이 더 타당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Ⅱ. ‘하느님’ VS ‘하나님’ 논쟁사 개관과 재해석

개신교 최초의 한글 성서 번역본인 『예수셩교 누가복음젼셔』(1882년)에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1842-1915)는 신약성서의 Θεός(God)를 순 한글인 ‘하느님’으로 번역했다. 이러한 토착 신명 번역에 대해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G. Underwood, 1859-1916)는 한국인의 토착 신관과 기독교 신

---

4) 물론 개신교와 가톨릭 성서에서 구약의 권수는 차이가 있다. 개신교 구약성서는 39권인데 반해, 가톨릭 구약성서는 46권이다. 가톨릭 구약성서에는 개신교의 39권 외에 7권(토비트서, 유딧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 상.하권)과 다니엘서 일부(3: 24~90; 13~14장), 에스델서 일부(10: 4~16, 24)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들을 가톨릭은 ‘제2경전(經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구약성서 안에 포함시키지만, 개신교는 ‘외경(外經)’이라 부르고 성서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5) 이 주제에 관해 가장 많은 연구를 한 학자는 옥성득 교수이다. 그 외의 다른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는 여기 소개하는 옥 교수의 저작들에 거의 모두 인용되어 있으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104-118;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285-290; *Id.*, 『한국기독교 형성사-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85-185.

앙의 혼동을 우려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논쟁이 재현되기는 했지만,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가 전개한 교회 일치 운동의 영향을 받아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번역위원회를 결성하고 신명 번역을 '하느님'으로 합의하여 1977년 공동번역 성서를 출판했을 때, '하나님' 지지자들과 '하느님' 지지자들 사이에 논쟁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쟁사의 재해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1882년 개신교 선교사들이 최초의 한글 성서번역을 출판하던 시기부터 기독교 신의 한국어 번역을 둘러싼 논쟁사와 한국어 표기법의 변천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기독교 신명(神名) 번역을 둘러싼 논쟁사와 한글 표기법의 변천

개신교 최초의 한글 성서 번역본인 『예수셩교 누가복음젼셔』(1882년)에서 로스는 신약성서의 Θεός(God)를 중국의 한문 성서 번역본에서 사용되던 上帝, 天主, 神 대신에 한국 민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순 한글어 '하느님'으로 번역했다. 여기서 당대의 '하느님' 표기법의 변천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1883년부터는 '하나님'으로 표기했다. 이는 아래 · 음가를 첫음절에서는 'ㅏ'로 표기하고, 둘째 음절에서는 'ㅡ'로 표기하던 것을 1883년에는 모두 'ㅏ'로 통일한 표기법의 변화에 기인한다.[6] 그리고 1889년부터는 '하ᄂᆞ님' 표기가 나타난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하느님', '하나님', '하ᄂᆞ님'으로 표기법이 달라지긴 했지만, 모두 '하늘'+'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7] 다시 말해, 기표(記表, signifiant)는 달라도 기의(記意, signifié)는 같았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는 로스의 '하느님' 번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1893년 『찬양가』를 출판하면서 당시 선교사들과 번역위원들이 널리 사용하던 '하ᄂᆞ님'이나 '샹뎨' 혹은 '텬쥬'를 거부하

6) 서선영, 「게일이 개역한글판 성경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39, 각주 78; 옥성득, 『한국기독교 형성사』, 119.

7) 류대영 외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111.

고 기독교 신명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춤신’과 ‘여호와’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개신교 내에서 기독교 신명 번역 논쟁이 본격화되었고[8], 한 세기 전부터 가톨릭에서 사용해 온 텬쥬, 로스역의 하느님/하나님/하ᄂᆞ님, 이수정 역의 神[9], 그리고 한문성경의 샹데(上帝)를 두고 선교사들과 번역자들 사이에 토론이 전개되었다.

옥성득의 정리에 따르면 1882년부터 구역 성경이 발간된 1911년까지 신명 번역은 세 시기로 구분된다. 1) 로스역의 ‘하느님’-‘하나님’-‘하ᄂᆞ님’ 채택기(1882-1894). 2) 하ᄂᆞ님과 텬쥬의 공존기(1895-1905): 상임성서실행위원회는 영국성공회선교부가 주장한 ‘텬쥬’를 결정했으나, 선교사 전체는 ‘하ᄂᆞ님’ 번역을 요구하자 두 의견을 존중하여 하ᄂᆞ님역 1,000부와 텬쥬역 500부를 인쇄한 시기.[10] 3) 하ᄂᆞ님 사용기(1906-1911): 선교사 게일(J.S. Gale, 1863-1937)이 ‘하ᄂᆞ님’으로 표기하면서 유일신의 의미를 첨가한 시기.

1920년대에는 교계 신문과 잡지들이 아래아 ‘ㆍ’를 폐지하면서 ‘하나님’으로 표기하였고 이는 193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 제정으로 아래아 ‘ㆍ’가 폐지된 후 1938년에 나온 『성경개역』은 종전의 ‘하ᄂᆞ님’을 ‘하나님’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1938년에서 1942년 사이에 나온 기독교계의 신문과 잡지 대부분은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에 따라 ‘하느님’을 사용하였다.[11]

해방 이후에 ‘하나님’ 대 ‘하느님’ 논쟁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으로 철자법이 바뀌면서 재현되었다. 1956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 ‘하나님’을 채택하자, 1960년대 토착화신학 주창자들은 한국의 토착 신명인 ‘하느님’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8년 가톨릭과 개신교가 결성한 공동번역위원회도 신명을 ‘하느님’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12] 그러나 1977년 마침내 공동번역성서가

8) 류대영 외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105-107. 언더우드가 얼마나 신명 번역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는지는 106-114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이수정 역본은 미국성서공회 지원으로 이뤄지면서 이 기관이 중국과 일본에서 채택한 ‘신’을 그대로 사용했다. 옥성득, 『한국기독교 형성사』, 124.

10) 류대영 외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105-111.

11) 류대영 외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187-188.

출판되었을 때 개신교에서는 '하느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 성서를 외면했다.[13]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개신교 내부에서는 『기독교사상』과 같은 교계 잡지를 통하여 '하느님' 찬성 논객들과 반대 논객들의 글을 나란히 소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신명 번역 논쟁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번역을 주장한 사람들의 번역 전략이 어떻게 달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개신교 선교사들의 신명 번역 전략

한글 성서 번역에서 신명 번역에 관해 견해를 밝힌 선교사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들은 로스와 언더우드와 게일이다. 이들의 번역 전략은 당시 논의되던 다양한 입장의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먼저 상반되는 번역 전략을 가졌던 로스와 언더우드의 입장부터 검토하자.

1) 로스와 언더우드의 상반되는 번역 전략: '토착화' 대 '낯설게 하기'[14]

로스와 언더우드는 상반되는 번역 전략을 택하였다. 즉 로스는 수용자에게 친숙한 언어로 번역하는 전략에 따라 토착어 신명인 '하느님'을 주저하지 않고 채택했다. 반면에 언더우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음으로써 원어의 낯섦을 유지하는 번역 전략을 선호했다. 언더우드는 "한국인들은 '하ᄂᆞ님'이란 말을 이해한다. 그들은 이미 하ᄂᆞ님을 섬겨왔다.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하ᄂᆞ님이 한

---

12) 공동번역의 '하느님' 채택 근거는 1) 이 표현이 국어 맞춤법에 맞고, 2) 선교에 유리한 토착어이고, 3) 교회 일치에 도움이 되는 타협적 용어라는 점이었다.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1945~2002)』, 285.

13) 개신교가 하느님을 반대한 이유는 이 글의 3절 (III. 해방 이후 '하느님' 혹은 '하나님' 지지 논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domestication vs foreignization. 이 두 단어는 번역 이론에서 사용되는 단어로서 '동화', '이화'로 번역되기도 한다. '토착화'는 주로 inculturation 혹은 indigenization이라는 영어 단어의 역어로 사용된다는 것을 밝혀둔다.

분 뿐이고 유일하신 신이라고 가르치고 그의 모든 속성을 말해주면 된다. 그러면 모든 일이 쉬워질 것이다.”[15]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춤신’, ‘여호와’ 등의 번역어를 선호했다. 이는 마치 17세기 중국에서 활동한 두 예수회 신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와 니콜로 롱고바르디(Niccolo Longobardi, 1559-1654)가 상반되는 번역 전략, 즉 토착화(domestication)와 낯설게 하기(foreignizing)를 각각 취했던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마테오 리치는 기독교 개념과 유교의 고전 경전 개념 사이의 문화적 등가를 주장하면서 기존 중국 개념을 사용했다. 반면에 롱고바르디는 신유학의 렌즈로 유교 경전을 읽고 유교 개념과 기독교 개념 사이의 불일치를 주장하면서 기독교 용어의 음역을 강조했다.[16] 이 두 예수회 선교사의 상반된 번역 전략의 바탕에는 유교 경전에 대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이해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두 선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활동한 두 선교사가 취한 서로 다른 번역 전략의 밑바탕에는 한국인의 ‘하느님’ 관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루고자 한다. 그전에 로스처럼 기독교 신명으로 토착어인 ‘하ᄂᆞ님’을 선택하면서도 언더우드가 방점을 찍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한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의 번역 전략을 살펴보자.

2) 게일의 ‘하느님’ 번역: 과연 새 의미의 첨가인가?

신명 번역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옥성득에 따르면, 로스가 최고신, 천주의 뜻으로 이해한 ‘하ᄂᆞ님’을 ‘하나’+‘님’, 즉 유일신의 뜻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 선구자는 게일이다.[17] 게일은 1900년에 쓴 글에서 주씨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인의

15)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125. 류대영 외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107에서 재인용.

16) S. Golden, “‘God’s Real Name is God’. The Matteo Ricci-Niccolo Longobardi Debate on Theological Terminology as a Case Study in Intersemiotic Sophistication”, *Translator* 15/2 (2009): 375-400.

17) 류대영 외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115.

‘하ᄂᆞ님’ 개념을 서술한다. 이 글은 자세하게 읽어 볼 가치가 있다. 게일이 전해주는 주씨의 말에서 당대 한국인의 신 관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씨가 말했다. “우리의 신(God)은 크신 한 분(the Great One)으로, ‘하ᄂᆞ님’(Hananim)으로 불리는데, 하ᄂᆞ를 뜻하는 말 ‘Hana’와 주(lord), 주인(master), 왕(king)을 뜻하는 ‘nim’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한 큰 창조자가 하ᄂᆞ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주(the universe, Chun-ji)의 건설과 연결시키며 그분을 고대의 창조자, 조화옹(Cho-wha-ong)이라고도 부릅니다.”
>
> (중략) 그는 만물이 위의 하늘에 계시면서 하시는 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거나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분은 삶의 중요한 운행에만 관여하신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평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2의 정령들에게 직접 빌고 기도하고 제사를 올리지만, 모든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는 하ᄂᆞ님을 부른다. 나는 이와 관련해서 내가 원산의 한 거리를 지나갈 때 하ᄂᆞ님을부르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한 할머니를 본 이야기를 주씨에게 해주었다.
>
> 주씨는 말했다. “그것이 그 노인의 최후의 의지(resort)인 거죠. 왜냐하면 하ᄂᆞ님은 영적 존재자들의 한계이고 그분을 넘어서서 호소할 여지는 없으니까요.”[18]

위 인용문의 첫 몇 줄을 인용한 옥성득은 이 글에 나오는 주씨를 국어학자 주시경으로 추측한다.[19] 이는 꽤 개연성이 있는 추정으로 보인다.[20] 그런데 여기 인용된 주씨의 말에 나타난 ‘하ᄂᆞ님’ 개념은 유일신론(monotheism)이 아니라, 여러 신 가운데 최고신을 의미하는 일신론(henotheism)과 ‘한가한 신(Deus otiosus)’[21]개념

---

18) J. S. Gale, “Korean Ideas of God”,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23-9 (Sept., 1900): 697. 밑줄은 필자의 것임.

19) 류대영 외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116, 각주 31.

20) 주시경은 1900년 6월 배재학당을 졸업할 무렵 아펜젤러 목사에게 세례를 받아 감리교인이 되었고, 같은 해 감리교회인 상동교회에서 청년 학원(야학)을 만들어 국어문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한영자전』을 편찬하는 등 한국어에 관심이 많았던 선교사 게일과 한글을 가르친 기독교인 주시경 사이에 친분이 생겼을 개연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역사적 배경을 알려 주신 국어학자 박진호 교수께 감사드린다. 주시경의 종교 행적과 신앙에 관해서는 다음 책의 제4부 3을 참고하라. 이덕주, 『초기 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471-501.

을 반영한다. 이 대목에서 일신론의 의미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은 이 글의 논지 전개를 위해 중요하다. 일신론(henotheism)은 그리스어로 하나를 의미하는 εἷς와 신을 의미하는 Θεός의 결합에서 유래하는 단어로, Max Müller(1823-1900)가 신은 오직 한 분이라는 유일신론(monotheism)과 구분되는 원시적 형태의 신앙을 지칭하기 위해 1860년에 주조한 단어이다.[22] 즉 일신론은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의 특수한 신만 가족 혹은 부족의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의미한다.[23]

‘하ᄂᆞ님’을 일신론의 의미로 소개한 주씨와 달리 게일은 1911년 ‘하ᄂᆞ님’을 사용하는 한글 최초 성경전서 출판기념식에서, 그리고 1년 후에도, ‘하ᄂᆞ님’을 유일신론의 의미로 명시적으로 풀이한다.

> ‘하ᄂᆞ님’(*Hanamim*)은 한 큰 분(the One Great One)이며, 지고자요 절대자로서 신비한 히브리어 명칭(appellation)인 ‘나는 나다’를 연상시킨다. ‘하ᄂᆞ’는 일(One)을 의미하고 ‘님’은 위대한 분(Great)을 의미한다. 우리의 색슨어 ‘God’는 복수로 사용될 때 이방신들에게 적용되던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전에 크게 조정해야 했다. 그리스어 ‘Theos’는 일본어 ‘Kami’처럼 소위 많은 신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고, 중국의 상제(*Sang-je*) 또한 많은 신위 중에서 최고신(the highest of many personalities)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ᄂᆞ님’은 다른 이름들이 오랜 기간의 사용 시기를 거치면서 애써 얻고 도달하려던 의미를 일시에 획득하고 있다.
>
> 한글 이름 ‘하ᄂᆞ님’과 정확한 한문 등가어(exact equivalent in Chinese)인 ‘天’(God of Heaven)은 ‘텬쥬’(Chon-ju)를 사용하는 자들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국이 성경의 도래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 놀라운 호칭(the wonderful appellative)에 대해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24]

---

21) Cf. 정진홍, 「‘하늘’님 考-deus otiosus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16/2 (1972): 122-129; 방원일, 「원시유일신 이론의 전개와 영향」, 『종교연구』 77/2 (2017): 26.

22) F. Max Muller, *Origine et développement de la religion*; P. Poupard (directeur de la publication), *Dictionnaire des Religion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4), 698.

23) F. L. Cross and E.A. Livingstone (ed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750.

24) J.S. Gale, “Korea’s Preparation for the Bible”, *The Korea Mission Field*, Mar., 1912,

이 인용문에서 게일은 '하ᄂᆞ님'이 12년 전 주씨가 소개한 일신론이라기보다 유일신론을 함축한다는 점을 Theos, Kami, Sang-je와 비교하면서 설명한다. 또한 그는 '하ᄂᆞ님'이 天과 정확한 등가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1911년 미국의 대표적 선교잡지 가운데 하나였던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는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알리는 글에서 '하ᄂᆞ님'을 소개하면서 "25년전 한국에서 선교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God에 대한 한국어 명칭이 없었다. 선교사들은 드디어 가장 가까운 등가어에 동의하였고, 거기에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의미를 더했다"[25]라고 쓴다. 이 글을 인용한 옥성득은 1911년 첫 셩경젼셔에 쓰인 '하ᄂᆞ님'은 주시경과 게일의 국어학적 노력과 선교사들의 신학적 작업의 결합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닌 새 용어였다"[26]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용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 단어의 형태소에 따르면 하늘을 의미하는 '하ᄂᆞ'와 '님'이 결합된 것이지만, 거기에 수사(數詞) '하나'의 의미를 첨가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마태오 리치도 『천주실의』(1603년)에서 天을 一과 大의 결합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天主, 天, 上帝가 같은 의미임을 설명하면서, 본래 天은 一과 大라고 말한다.[27]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게일의 글 속에 나오는 주씨가 '하ᄂᆞ님'을 '하나+님'으로 풀이한 것에도 이런 『천주실의』에 나타난 한자 天의 설명의 영향이 간접적으로라도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비록 현대

86.

25) "Korea-The Changes of Seven Years", *MRW*, Feb. 1911, 144.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 118에서 재인용.

26) "Korea-The Changes of Seven Years", *MRW*, Feb. 1911, 144.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 118에서 재인용.

27) 마테오 리치, 『천주실의』, 송영배, 임금자, 장정란, 정인재, 조광, 최소자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2편 15, 104. 이 출처를 확인해 주신 박사과정 학생 이경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천주실의』의 불어 번역본에는 현대 어원학이 이러한 전통적 설명을 거부하며, 상왕조의 상제와 주왕조의 천의 의미도 상당히 다르다는 각주가 붙어있다. Matteo Ricci, *Le sens réel de "Seigneur du Ciel"* (Paris: les belles lettres, 2013), 48, n. 67.

어원학에서는 天의 어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천주실의』에 그런 설명이 나오고, 이 책이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읽혔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天 이해가 게일이 우리말 ‘하늘’의 의미를 풀이할 때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게일은 ‘하ᄂᆞ님’의 의미를 풀이할 때 계속 ‘한 큰 분(One Great One)’이라는 설명을 붙이고, 한문 天과 등가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이 점을 고려하면, 게일이 하ᄂᆞ님’에 수사 ‘하나’의 의미를 첨가한 선구자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국 기독교와 조선 가톨릭에서 사용되던 ‘천주’에서 이미 이런 현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게일 자신이 ‘하ᄂᆞ님’은 ‘텬쥬’를 사용하는 자들과 일치하게 만든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일의 에큐메니컬 정신은 언더우드와 같은 개신교 선교사의 태도와는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더우드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별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가톨릭을 ‘로마주의(Romanism)’[28]라는 경멸적 용어로 부르며, ‘왜곡된 기독교’(perverted Christianity)라고 치부했다.[29]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새 용어’로서의 ‘하ᄂᆞ님’의 뜻 풀이는 사실은 백낙준이 1927년 예일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원고를 1929년 평양에서 출판했던 저작(*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에 오히려 분명하게 나타난다.

> 혼란과 논쟁은 하늘님의 변형인 하ᄂᆞ님의 채택으로 드디어 끝났다. 하늘님은 두 개의 한글 단어, 하늘(Heaven)과 임(Lord)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님을 한자로 옮기면 가톨릭이 채택한 용어인 ‘천주’(天主)가 된다. 새 단어인 하ᄂᆞ님은 ‘하늘님’의 모음 1개와 자음 1개를 바꾼 것이다. ‘ㆍ’와 ‘ㅡ’, ‘ㄹ’과 ‘ㄴ’의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ᄂᆞ님은 한국인들에게 하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새 용어는 새 의미를 가진다. 어원적으로 하ᄂᆞ님(Hananim)은 하나(one), 유일(only), 혹은 단독(alone)의 뜻인 ‘하나(Hana)’와 주(lord)의 뜻인 ‘임(Im)’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새 단어 ‘하ᄂᆞ님’은 한 분 주님, 혹은 유일한 주님을 의미하게 되었다. 오늘날 ‘하늘님’ 용어(term)는 거의 사라졌고, ‘하ᄂᆞ님’이라는 단어(word)로

28) Romanism은 가톨릭을 지칭하는 경멸적 용어임.

29) 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1』(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725.

대체되었다.[30]

이 인용문에서 백낙준은 '하ᄂᆞ님'이 '하늘님'의 변형어이고 새 용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하늘님'은 어원적으로 하늘(Heaven)+임(Lord)으로 구성된 단어이지만, 새 용어 '하ᄂᆞ님'은 하나(One)+임(Lord)으로 구성된 단어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백낙준과 게일의 차이가 드러난다. 백낙준은 '하ᄂᆞ님'이 새 용어임을 강조하면서 형태소 분석에서 '하늘'이 아니라 '하나'임을 명시한다. 반면에 게일은 '하ᄂᆞ님'을 '한(One)'+ '큰 분(Great One)'으로 풀이하지만, 동시에 '하ᄂᆞ님'은 한문 '天'의 정확한 등가어임을 덧붙임으로써 天의 의미를 탈각시키지 않는다.

게일과 백낙준의 '하ᄂᆞ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전통적으로 최고신(Supreme God)의 의미로 사용된 '하ᄂᆞ님'과 뚜렷하게 구분하여 유일신의 의미로 '하ᄂᆞ님'을 사용한 것은 게일이 아니라 백낙준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로스와 언더우드 그리고 게일의 서로 다른 번역 전략의 밑바탕에는 한국인의 '하느님'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한국인의 전통적 '하느님' 신앙에 대한 선교사들의 이해

먼저 기독교 신을 '하느님'으로 번역한 로스는 한국인의 '하느님'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의 말을 들어보자.

> 한국인들은 최고 존재자(the Supreme Being)에 해당하는 순 한글 명칭과 한문에서 빌려온 명칭을 갖고 있는데, 전자는 '하늘'(hanul)에서 나온 '하느님'(Hannonim)이고 후자는 '샹데'(Shangde)이다. '하느님' 명칭은 아주 독특하고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번역이나 설교를 하는 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30) L. George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Pyeng Yang: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1929), 241-242. 밑줄은 필자의 것임.

> 주제에 대해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꼴사나운 말다툼이 벌어졌다. ‘하느님’이란 용어가 주는 개념은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능자요 무소부재하며 보이지 않는 신으로서 天老爺(Tien layoye)와 비슷하다고 하겠다.[31]

우선 로스는 한국인들이 최고 존재자, 즉 최고신을 나타내기 위해 순 한글어 ‘하느님’과 한자어 ‘상제’(上帝)를 사용한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의 의미를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능자요 무소부재하며 보이지 않는 신으로서 天老爺(Tien layoye)”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한다. 만주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선교를 희망한 로스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역사와 종교를 연구했다. 이를 통해 그는 고대 중국의 유교, 만주의 도교, 한국 서북지방의 샤머니즘의 원시 유일신론(primitive monotheism) 담론을 알게 되었고, 만주 도교의 상제, 원시 유교의 상제,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진 민간신앙의 하느님이 기독교 경전에 나오는 신 이름인 엘로힘(구약)과 테오스(신약)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했다.[32] 그는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기독교 신 이름을 ‘하느님’으로 번역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순 한글 말 ‘하느님’이 중국에서 벌어졌던 ‘꼴사나운’ 신명 번역 논쟁을 막아준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로스는 한국인의 ‘하느님’ 개념이 기독교의 유일신 개념과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하다고 이해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친숙한 말인 ‘하느님’(1883년부터는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하느님’을 유일신 개념으로 사용했던 그는 이교의 신은 ‘신’으로 번역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너희는 신(אלהים)이라”를 인용하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나오는 Θεούς를 ‘신’으로 번역한다.[33] 이 구절에 나오는 이교의 신을 ‘신(神)’으로 번역한 로스

---

31) J. Ross, *History of Corea, Ancient and Modern* (London: Elliot Stock, 1891[1879]), 355. 류대영 외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105에서 표현을 약간 수정하고, 영어 표현도 첨가하여 재인용.

32) 안성호, 「존 로스의 중국유교 원시유일신론과 중국어 성서번역의 용어 논쟁에 관한 신학적 입장」, 『한국기독교와 역사』 40 (2014): 227-230, 233-234; 옥성득, 『한국기독교 형성사』, 109-118.

33) 물론 Θεούς는 문법적으로 복수 대격 형태이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나오는 ‘신’

의 번역은 오늘날 가톨릭의 『성경』(2005)과 대한성서공회의 『새한글성경』(2021)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반면에 언더우드는 한 문화권의 신들 이름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면 그 문화권의 다른 신들이 함께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다른 일반 신들(gods)을 배제하는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34] 그가 선택한 대안은 춤신, 샹쥬, 여호와 등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한국문화의 다신론적 배경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기독교의 유일신 개념을 담기에 적절한 그릇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전통 신관에 대한 그의 이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신명 번역 논쟁에서 언더우드 편에 가담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기퍼드(D. L. Gifford)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 한국의 종교적 신앙은 유교와 불교 그리고 샤머니즘의 혼합임을 알 수 있다. (...) 각 종교는 이 나라의 신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체계의 최상위에는 중국인들의 상제에 해당하는 하ᄂᆞ님이 있다. 바로 그 밑에 부처가 있다고 대부분 소개할 것이다.[35]

기퍼드는 한국의 신화체계가 하ᄂᆞ님-부처-시왕-산신의 서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하느님'은 한국의 다신 중의 하나이지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일신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기퍼드는 한국인의 '하ᄂᆞ님' 개념을 여러 신의 존재를 전제하는 일신론 개념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후에 언더우드는 중국과 초기 한국종교를 연구하면서 고구려인들이 위대하고 유일하신 하ᄂᆞ님을 섬겼음을 발견하고, 하ᄂᆞ님에 대한 자신과 한국인

번역 사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집담회에서 신약성서 신명 번역 문제를 발표한 이두희(대한성서공회 번역 담당 부총무)의 발표문에서 참고함.

34)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NY: Fleming H. Revell, 1918), 124-126. 국역본: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생활』, 김철 옮김 (서울: 뿌리깊은 나무, 1984), 101-102. 류대영 외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107에서 재인용.

35) D. L. Gifford, *Every Day Life in Korea* (NY: Fleming H. Revell, 1898), 88-89, 류대영 외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113에서 재인용.

일반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한국의 고유한 ‘하ᄂᆞ님’ 개념을 사용하면 그 본래 의미가 한국인들의 가슴속에 쉽게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하ᄂᆞ님을 수용했다.[36] 그가 ‘하ᄂᆞ님’을 기독교 신명으로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한국인의 ‘하ᄂᆞ님’ 개념을 유일신으로 이해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 이렇게 로스, 그리고 고구려인들의 신 관념을 발견한 이후의 언더우드는 한국인의 ‘하느님’ 개념을 유일신론적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뚜렷하게 한국인의 ‘하느님’ 개념을 유일신론으로 이해한 선교사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바란다”고 했던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이다.

> 낯선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날 한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순수한 종교적인 개념은 외래적인 숭배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거친 자연 숭배와도 거리가 먼 ‘하ᄂᆞ님’ 신앙이다. 이 ‘하ᄂᆞ님(Hananim)이란 단어는 ‘하늘(heaven/sky)’과 ‘님(master)’의 합성어로서 한자어 天主(Lord of Heaven)에 해당하는 것이다. 모든 한국인은 이 하ᄂᆞ님을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 간주한다. 그는 자연계에 우글거리는 여러 영이나 귀신들의 무리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무리 밖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인들은 엄격한 유일신론자들(monotheists)이며, 이 하ᄂᆞ님에 부여된 속성이나 힘은 외국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가르칠 때 거의 보편적으로 이 용어를 수용할 정도로 여호와(Jehovah)의 속성과 능력과 일치한다. (...) 중국에서는 天主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찾아볼 수 있는 데 반하여 한국인들은 하ᄂᆞ님의 물리적인 표상(physical representation)을 만들려고 절대로 시도하지 않았다.[37]

인용문에 나타나는 헐버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조지훈은 가치 판단을 왜곡한 억설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의 원시종교는 유일신도 아니요,

---

36)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126. 류대영 외 공저, 『대한성서교회사 II』, 114에서 재인용. 김홍수는 다음 논문에서 언더우드가 고대 한국인들의 신관념을 일신론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긴다. 김홍수, 「호레이스 G. 언더우드의 한국종교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25 (2006): 33-55.

37) H. E.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69) 404. 초판은 (London: Wm. Heinemann, 1906). 밑줄은 필자의 것임.

다신을 통솔하는 단일신도 아니며, 한국 원시 종교의 신은 一而多神, 다신은 일신이 분화되는 일신의 萬化"[38]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정대위는 세계 기독교 선교사에서 유례가 없는 한국기독교의 폭발적 성장의 종교적 배경을 연구하면서 한국종교 전통이 유일신 개념(monotheistic concept of God)과의 친화적 요소를 실체적인 방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관찰했고, 이것이 한국에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39] 그러니까, 로스, 언더우드, 헐버트 그리고 정대위는 기독교 전래 이전에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하느님' 신앙을 유일신론적으로 해석한다. 이들의 주장은 종교 진화론적 입장과 상반되게 종교의 역사를 원시 유일신론에서 다신론으로 변화해 갔다고 이해한 인류학자 앤드루 랭(Andrew Lang, 1844-1912)[40]이나 빌헬름 슈미트(Wilhelm Schmidt, 1868-1954)[41]의 관점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인의 전통적 '하느님' 신앙을 유일신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42] 이러한 해석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43]

---

38) 조지훈, 『한국문화서설』, 조지훈전집 7 (서울: 나남출판사, 1996), 95.

39) David Chung, *Syncretism. The Religious Context of Christian Beginnings in Korea* ed. by Kang-nam Oh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176-179.

40) 방원일, 「원시유일신 이론의 전개와 영향」, 『종교연구』 77/2(2017), 9-34; 위에서 소개한 자료 외에도 한국의 원시 유일신관 존재를 주장하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Charles Allen Clark, *Religions of Old Korea* (Seoul: The Christian Lecture Society of Korea, 1961), 196-7; Gale,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Layman's Missionary Movement, 1909), 69; Underwood, *Religions of Eastern Asia* (New York: Macmillan, 1910), 110.

41) N. Smart, *The World's Religions. Old Traditions and Modern Transformations* (Cambridge, New York et alib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35.

42) 돈 베이커는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수용하기 오래전에 유일신론자였다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그 근거로 내세워진 고대 신화와 역사 기록을 검토하고, 잘못 이해한 결과라면서 비판한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그의 이런 주장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Don Baker, "Hananim, Hanunim, Hanullim, and Hanollim: The Construction of Terminology for Korean Monotheism",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5/1 (2002): 105-131.

43) Cf. 조성환, 『하늘을 그리는 사람들』 (고양시: 소나무, 2022); 정진홍, 「하늘과 한국인의 종교」, 최정호, 이태원 공편, 『하늘과 한국인의 삶』 (서울: 나남출판사, 1997); 김경탁,

그런데 이 글의 주된 목표, 즉 ‘하느님’이 한국어 기독교 신명 통일을 위한 보다 나은 선택지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개신교 선교 초기부터 신명 번역을 둘러싼 논쟁사 개관을 넘어, 보다 구체적으로 해방 이후 ‘하느님’ 혹은 ‘하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논거를 제시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해방 이후 ‘하나님’ 혹은 ‘하느님’ 지지 논거 개관

‘하나님’ 지지자들의 논거와 ‘하느님’ 지지자들의 논거를 차례대로 간략하게 살펴보자.

1) ‘하나님’ 지지 논거

‘하나님’ 지지 논거로는 이장식과 옥성득이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44] 한신대 교수였던 이장식은 ‘하나님’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번역 성서의 ‘하느님’ 번역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는 ‘하느님’이 하늘을 인격화하는 자연 숭배의 신관을 반영하며, 한국의 민간 신명이기 때문에 자연 숭배와 범신론의 위험을 가진다고 보고, 기독교의 유일신관을 담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수사가 인격화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말로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국어학자 최현배 선생의 말[45]을 인용한 다음에 “국어 어법을 존중할 것인가 하느님은 자연숭배의 신관이니까 버려야 한다는 신학적 사고를 존중해야 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진다.[46] 이 질문에는 한국인의 ‘하느님’ 신앙은 자연 숭배라는 전제

「하느님 관념 발달사」, 『한국문화사대계(X): 종교 철학사(상)』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92년 3판, 초판은 1965).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https://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4930#none.

44) ‘하나님’을 지지하는 선행 연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참고 문헌은 다음을 참조하라.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287.

45) 최현배, 「기독교와 한글」, 『신학논단』 7 (1962): 71.

46) 이장식, 「‘하나님’ 칭호의 신학적 근거」, 『기독교사상』 24/8 (1980): 129.

가 깔려 있다. 반면에 그가 '하나님'으로 한국기독교 신명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근거는 그것이 기독교의 유일신관을 담고 있고, "개신교에서 이미 토착된 신명"이고 "한국기독교인의 말이 되어 버렸다"[47]는 것이다.

한편, 옥성득은 토착어 '하ᄂᆞ님'에 '하나'라는 의미를 첨가한 게일과 주시경의 '하ᄂᆞ님' 이해를 '신용어'의 창출로 해석하고, "토착적이고 기독교 정체성을 잘 유지해 주는 훌륭한 용어"[48]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과 '하느님'의 공존은 청산해야 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한다.[49] 『대한성서공회사 II』(1994년)에서는 "단순히 국어학적인 차원에서 옳기 때문에, 혹은 교회연합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 '하느님'을 주장하는 것은 용어 '하ᄂᆞ님'의 역사에서 19세기의 논의 차원으로 되돌아가는 시대착오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50]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선호하는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한국기독교 형성사』(2020)에서는 두 명칭 가운데 어느 한쪽에 대한 선호를 표명하는 대신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기독교는 그만큼 기독교 신론을 아직 한국 종교문화에 정착시키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치열한 용어 연구와 논쟁을 통해 이 신학적 직무유기를 해결해야 할 것"[51]을 역설한다.

'하나님'을 지지하는 이들이 제시한 논거의 핵심은 '하느님'은 자연 숭배 혹은 범신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배격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기독교의 유일신 개념을 더 잘 표현한다는 것이다.

2) '하느님' 지지 논거

김광식은 공동번역 출판 이후 재점화되었던 한국어 신명 논쟁이 1990년대까지

---

47) 이장식, 「'하나님' 칭호의 신학적 근거」, 130.
48) 류대영 외 공저, 『대한성서교회사 II』, 188.
49)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289; 『한국기독교 형성사』, 185.
50) 류대영 외 공저, 『대한성서교회사 II』, 188.
51) 옥성득, 『한국기독교 형성사』, 185.

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근거들을 종합하고 있다.[52] 먼저 그는 전통적으로 사용된 ‘하ᄂᆞ님’은 숫자 1이 아니라 하늘 또는 하날에서 나온 것임을 명시한다.[53] 그는 ‘하ᄂᆞ님’이 하나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졌다면, ‘ᄒᆞ나’로 표기했어야 했는데, 한글 번역성서는 단 한 번도 ᄒᆞ나님이라고 표기한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맞춤법을 무시한 문법적 오류라고 주장한다.[54] 사실 이와 관련된 음운론적 분석은 곽노순이 앞서서 자세하게 보여준 바 있다.[55]

그리고 김광식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가진 신학적 문제점을 언급한다. 즉 ‘하나님’은 마치 수신(數神)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독교 삼위일체론 이단의 하나인 군주신론(Monarchianism)[56]과 신플라톤주의의 일자(一者)와 유사성을 가진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보다 약 30년 앞서 국어학자 최현배 선생은 ‘하나님’은 기독교 신관보다 신플라톤주의의 일자와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주장했다.[57] 그런가 하면 곽노순은 신의 명칭으로 수사 ‘하나’를 사용하는 것은 천도교의 ‘한울림’, 대종교의 ‘한얼님’과 같은 계열의 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58]

‘하나님’을 비판하는 이유를 제시한 다음에 김광식은 공동번역의 ‘하느님’ 선택이 복음의 토착화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에큐메니컬 차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더 나아가 그는 기독교 영성과 한국종교 심성의 만남을 통한 에큐메니컬 차원도 언급한다.[59]

위에 제시된 양쪽 논거를 비교해볼 때, 필자는 ‘하느님’이 기독교 신명의 한국어

---

52) ‘하느님’을 지지하는 연구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라.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III』, 287, 각주 194.

53) 김광식, 「하ᄂᆞ님과 ᄒᆞ나님」, 『신학논단』 27 (1999.6): 116.

54) 김광식, 「하ᄂᆞ님과 ᄒᆞ나님」, 120.

55) 곽노순, 「한국교회와 '하나님' 칭호(II)」, 『기독교사상』 15/3 (1971): 121-127.

56) 성부의 신성만 인정하는 것으로, 극단적 유일신론 관점을 나타낸다.

57) 최현배, 「기독교와 한글」, 『신학논단』 7 (1962): 71.

58) 곽노순, 「한국교회와 '하나님' 칭호」, 『기독교사상』 15/2 (1971): 108.

59) 곽노순, 「한국교회와 '하나님' 칭호(II)」, 124-127.

용어 통일의 더 나은 선택지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를 이 글 서두에서 약속한 것처럼 다차원적으로 제시할 차례다.

Ⅳ. 기독교 신명 통일을 위한 후보로 '하느님'을 지지하는 이유

먼저 위에서 소개한 선행연구자들이 '하나님'을 지지하면서 언급한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하느님'을 지지하는 근거를 에큐메니컬 관점, 기독교의 삼위일체론, 종교사, 번역 이론, 문화사의 차원에서 간결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장식이 '하나님'이라는 개신교 용어를 두고 "한국기독교인의 말이 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누가 보아도 '하느님'을 사용하는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와 같은 기독교의 다양한 교파를 염두에 두지 않는 개신교 교파 중심적인 편협한 관점이 아닐 수 없다.[60] 이장식과 반대로 백낙준은 예일대에 제출했던 박사논문의 제3판을 1980년 연대출판부에서 간행하면서 변화된 언어 상황에서 '하나님'은 표준어가 아닌 개신교 용어라는 점을 지적하고, "오늘 대부분의 개신교 단체는 그들에게 친숙한 하나님을 고수하지만, 개신교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개신교와 가톨릭 둘 다를 위한 용어의 통일을 위해 표준어 하느님의 사용을 옹호한다."[61]라면서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 지지자들은 모두 이 표현이 유일신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 외에 기독교의 신명으로 유일신의 의미를 가진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God'나 'Gott'의 어원적 의미는 '부르다'이고, 'Dieu'는 라틴어 Deus에서 오는데, 이 단어는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인도

60) 이장식은 어쩌면 '기독교'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흔히 잘못 사용되는 어법에 따라 '개신교'의 의미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기독교의 다른 교파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61) L. George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80), 253.

유럽어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 자체에 유일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신교 성서 외에도 이슬람 경전의 번역서인 꾸란 주해에서 알라가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다.[62] 이것도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사실 영어나 불어로는 ‘알라’를 기독교 신명과 같은 God와 Dieu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개신교 성서와 한국어 꾸란 주해만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일반 언중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신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옥성득의 주장처럼 “최고의 신 개념을 넘어 유일성 개념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기독교 정체성을 확보한 훌륭한 용어”[63]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관은 유대교나 이슬람과 마찬가지로 유일신론에 속하지만, 두 종교의 신관과는 달리 삼위일체론적 유일신론(Trinitarian monotheism)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비잔티움 신학자인 고백자 막시무스(Maximus the Confessor, 580-662)는 삼위일체론적 유일신론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리스와 유대는 신에 대한 대립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즉 그리스는 기원이 다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신 숭배를 조장하는 반면, 유대교는 편협하고 불완전하고 의미와 생명이 없는 유일한 기원이 있다고 보면서 다신론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 무신론에 빠진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다신론도 유일신 개념도 없다. 기독교의 신은 삼위일체로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지만, 존재 양식에 있어서는 세 위격이 있기 때문이다.[64] 이러한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론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기독교 신 개념을 빈곤하게 만드는 문제를 가진다.

---

62) 이슬람교에서 ‘하나’는 99개의 알라의 이름 가운데 하나이긴 하다. “알라는 100개보다 하나 모자라는 99개 이름을 가진다. 그것을 배우는 이는 누구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Hadith* 386. 구약성서에서도 ‘하나’가 신의 이름으로 사용된 용례가 드물지만 발견된다. 욥기 31장 15절과 스가랴 14장 9절 히브리어 원문에서 발견된다.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에 나오는 표제어 ‘One’을 참고하라. 이에 대한 논의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신한국 집담회에서 구약성서의 신명을 다룬 김동혁 교수의 발표문을 참고함.

63)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289, 각주 200.

64) Maximus Confessor, *Expositio Orationis Dominicae*, PG 90, 892; *La philocalie présentée par Olivier Clément. Les écrits fondamentaux des pères du désert aux pères de l'Eglise (IV-XIV siecle)* (Paris: Desclée de Brouwer, 1995), 558.

물론 기독교의 신관은 유일신론 범주에 속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만으로는 삼위일체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장식은 '하느님'을 기독교 신명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하느님' 개념이 하늘을 인격화하는 자연 숭배 신관을 반영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입장은 위에서 살펴본 한국의 전통적 신관을 유일신론으로 해석한 사람들의 관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발전해 온 한민족의 '하느님' 관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한국인의 전통적 하느님 개념과 그리스도교적 신관이 접목되는 역사적 현상을 종교사의 관점에서 고찰한 김승혜의 주장에 더 수긍이 간다.[65] 그는 한국인의 원초적 종교의식 구조 안에 '하느님' 개념이 있었다고 보며, 이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고 주장한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초기의 신학자들이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천(天), 곧 하느님이 기독교가 전하는 신과 같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은 "단순한 전교상의 유용성 때문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주가 둘일 수가 없다는 신앙상의 확신이기도 했다."[66] 이런 이해에 기초해서 그는 공동번역의 '하느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은 전통적 하느님과는 다른 신이라는 주장, 즉 한국인의 전통적 하느님관을 배격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67] 필자의 눈에도 한국인의 하느님 관념과 기독교의 신 관념 사이에 있는 연속성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오직 불연속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신에게서 나오며 신에게로 돌아간다고 선언하는(롬 11:36) 기독교의 신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65) 김승혜는 한국인의 전통적 하느님 개념과 기독교 신관을 비교하고, 둘의 공통점은 1) 지고신,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 2) 생사 화복 주관자, 3) 질서와 정의의 신으로 이해하는 점에 있다고 본다. 반면에 그는 둘의 차이점을 이루는 기독교 신관의 독특성을 다음 세 가지로 꼽는다. 1) 지고신일 뿐만 아니라 유일신. 2) 생사화복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 3) 정의로운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신. 김승혜, 「한국인의 '하느님' 개념과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사상」, 『한국전통사상과 천주교』 제1집 (서울: 탐구당, 1995), 367.

66) 김승혜, 「한국인의 '하느님' 개념과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사상」, 421.

67) 김승혜, 「한국인의 '하느님' 개념과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사상」.

마지막으로 번역 이론의 수용자 관점과 문화사의 측면에서도 ‘하느님’이 더 나은 용어 통일을 위한 후보로 보인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명시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만 쓰는 용어이지만, ‘하느님’은 한국인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을 ‘하느님’으로 번역하면 개신교 외의 한국 언중에게는 훨씬 더 친근하게 수용될 수 있다. 번역에서 수용자의 관점을 고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말의 의미는 언어 속에서의 사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68] 개신교가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용어의 역사를 깊이 공부한 전문가 외에 일반 언중은 ‘하나’+‘님’의 의미로 수용하지, 용어 논쟁 과정에서 함축되었던 기독교 신론에 내포된 모든 복합적 의미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하느님’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한 언중에게 개신교의 용어로 고착된 ‘하나님’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수용자의 관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을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왔기에 이 표현이 몸에 잘 맞는 옷처럼 익숙한 개신교인들에게 신 호칭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함에도 개신교인들이 개신교 외의 다른 기독교 교파들과 일반 언중을 고려하여 ‘하나님’을 성숙하게 포기할 수 있다면, 한국의 다른 언중들과 신명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같은 그리스도교인인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의 신자가 ‘하느님’을 사용한다고 해서 개신교인들이 신앙하는 삼위일체론적 유일신과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님을 개신교인들도 잘 알고 있는 마당에 다른 신명을 고수하는 것은 교회 일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개신교 외의 다른 교파들도 신명 통일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에큐메니즘 정신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개신교 외의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하느님’, 서두에 인용한 로스가 고마움을 느꼈다고 말한 ‘하느님’을 개신교가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침내 한국기독교의 신명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문화사적으로도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하느님’은 한국 전통사상 속

68) L.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sec. 43 (New York : Macmillan Pub., 1968), 20.

에 이미 내재해 있던 원시 유일신론적 개념에 조응(照應)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신명의 토착화에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이다.[69] 신조어보다 토착어를 신명으로 채택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언중이 그것을 보다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V. 나가는 말: 기독교 용어 통일을 위한 제언

필자가 알기에 세계에서 기독교의 신명을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두 나라에서 용어 통일을 위한 노력이 번번이 난관에 부딪혔던 것을 기억하는 이들은 굳이 신명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일치가 가진 문제점을 깊이 인식한다면, 일치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기독교 교파 간 신명의 불일치는 마치 다른 신을 믿는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그것은 기독교 교회론의 첫 번째 표지인 교회의 일치에 어긋나고, 교파 간 일치의 길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지금까지 기독교 신명으로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느님'이라는 두 용어는 개신교의 우리말 성서번역이 시작된 시기에는 기표(記表, signifiant)는 달라도 기의(記意, signifié)는 모두 '하늘+님'이었다. 하지만, 현대 한국의 일반 언중에게는 전자는 '하나(一)+님', 후자는 '하늘+님'의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세계 기독교에서 '하나(一)+님'의 뜻을 담은 신명을 쓰는 나라는 필자가 알기에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세계에서 이례적이라는 점이 설사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 유일신 개념을 빈곤하게 만드는 약점이 있다. 반면에 '하느님'의 첫 번째 형태소인 '하늘'은 인류의 종교사에서 최고신을 표상하는 가장 보편적 상징일 뿐만

69) 한국가톨릭교회 내부에서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 13회에 걸쳐 전개된 '신관의 토착화 연구' 발표회 내용을 평가하고, 기독교 신관 토착화의 과제와 전망을 정리한 다음 글을 참고하라. 심상태, 『한국교회의 토착화 신학』 (화성, 서울: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16), 190-233.

아니라 성서에서도 하느님을 지칭하기도 하고[70], 환유적으로 하느님을 나타내기도 한다.[71]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이 용어를 자연 숭배 혹은 범신론과 결부시키지 않고, 많은 종교학자와 신학자들의 말처럼 한국인의 의식 속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최고신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개신교가 굳이 이 용어를 반대해야 할 신학적 이유는 없다고 본다.[72]

그런데도 한국개신교와 가톨릭이 같은 신앙의 대상인 신의 이름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밑바탕에는 긴 역사적 배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사실 개신교가 한국에 전파되던 시기에 개신교와 가톨릭은 서로 우호적이기보다는 폄훼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과 루터파 사이에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반목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수백 년 동안 가톨릭교회는 루터의 논적이었던 요하네스 코클레우스(Johannes Cochlaeus, 1479-1552)의 루터 비판에 의존하여 루터를 ‘배교자’, ‘기독교의 파괴자’, ‘풍속을 부패시키는 사람’으로 이해해 왔다.[73] 이러한 이해 방식은 그동안 한국가톨릭교회 안에도 편만해 있었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 동안 방대한 루터 저작에 대한 가톨릭 학자들의 고된 연구와 에큐메니즘의 발전을 통해 루터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나타났고, 1983년에 ‘그리스도인 일치 증진을 위한 교황청 위원회’가 개최한 가톨릭교회와 루터파

---

70) 대표적인 구절은 다니엘 4장 26절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신한국 집담회에서 발표된 김동혁 교수의 “엘, 엘로힘, 야훼: 이스라엘 하느님의 이름들과 그 함의”를 참고함.

71) 한 가지 예만 들면, 마태복음 11장 11절과 누가복음 7장 28절에 사용된 병행 어구 ‘하늘나라’와 ‘하느님(하나님) 나라’에서 마태복음은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대인들의 어법에 따라 ‘하늘’이라는 말로 하느님(하나님)을 나타낸다. 동서그리스도교문헌연구소 제17차 학술대회에서 이 주제를 발표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이 점을 환기해 주신 신약학자 조재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72) 물론 개신교 안에는 다양한 교파와 신학적 입장이 있어서, 이 용어가 종교다원주의를 함축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이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73)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 & The Pontifical Council of Promoting Christian Unity, *From Conflict to Communion : Lutheran-Catholic Common Commemoration of the Reformation in 2017*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3), n.22, 18.

교회의 대화에서 두 교파는 루터를 '복음의 증인'이라고 공동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 가톨릭교회의 에큐메니컬 동향과 물결이 한국가톨릭교회 안에서는 아직 충분히 확산하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한국개신교 안에서도 가톨릭을 이단시하는 교단이 적지 않다. 이처럼 한국기독교 안에 에큐메니컬 정신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양 교파는 지금까지 한국기독교 신명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했고, 불일치의 현실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는 대한성서공회가 2021년 새로 번역 출간한『새한글성경』이 기존의 개신교 신명을 고수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개신교의 현실을 존중하는 선택에서 비롯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번역 출판 이후에 '하느님'이 초래한 개신교 내부의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에 기인할 것이다. 물론 수십 년간 고착되어 온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은 분명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기존 습관을 고수하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같은 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신명의 불일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새한글성경』의 '하나님' 고수는 아쉬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밝힌 '하느님'이 가진 여러 차원의 장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착과 익숙함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개신교와 가톨릭의 공동번역 성서에서 '하느님'으로 통일했고, 현재 한국기독교 여러 교파 가운데 개신교를 제외한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가 모두 '하느님'을 사용하고 있다. 개신교가 이런 현실을 고려하고, 기독교의 정체성보다 개신교의 정체성을 더 앞세우지 않는다면 익숙한 언어를 포기할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공동번역위원회가 공동번역성서를 출판했을 때 가톨릭교회는 개방적인 태도로 '천주'를 '하느님'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천신'은 '천사'로, '종도'는 '사도'로 바꾸면서 개신교 용어를 과감하게 받아들여 용어 통일의 선례를 보여주었던 점을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74]

---

74) 한국종교연구회,『한국 종교문화사 강의』(서울: 청년사, 1998), 426.

요컨대, 가톨릭과 개신교 간 용어 통일은 교회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75] 이 연구가 기독교 신명 통일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다시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주교와 개신교가 신명뿐만 아니라 성서 책 제목, 인명, 지명, 그리고 중요한 신학 용어에 이르기까지 거의 체계적이라 할 만큼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 즉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한국기독교 용어 불일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신명(神名), 하나님, 하느님, 기독교 용어, 에큐메니즘, 한국기독교

원고접수일: 2022년 04월 27일
심사완료일: 2022년 06월 20일
게재확정일: 2022년 06월 22일

75) Cf. “주의 몸된 교회가 엇지 서로 소원냉담함이 가하리오. 그런즉 이 문제는 중대막심한 즉 (...) 원컨대 형제들이여 묵상중 실행적으로 연구할지어다.” 「기독신보」 1919.9.17. 사설.

참고문헌

곽노순. 「한국교회와 '하나님' 칭호」. 『기독교사상』 15/2 (1971): 105-113.

_____. 「한국교회와 '하나님' 칭호(II)」. 『기독교사상』 15/3 (1971): 121-127.

김경탁. 「하느님 관념 발달사」. 『한국문화사대계(X): 종교 철학사(상)』.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92년 3판, 초판은 1965.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https://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4930#none

김광식. 「하ᄂᆞ님과 ᄒᆞ나님」. 『신학논단』 27 (1999.6): 115-130.

김승혜. 「한국인의 '하느님' 개념과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사상」. 『한국 전통사상과 천주교』 제1집, 365-427. 서울: 탐구당, 1995.

김홍수. 「호레이스 G. 언더우드의 한국종교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25 (2006): 33-55.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마테오 리치. 『천주실의』. 송영배, 임금자, 장정란, 정인재, 조광, 최소자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방원일. 「원시유일신 이론의 전개와 영향」. 『종교연구』 77/2 (2017): 9-34.

서선영. 「게일이 개역한글판 성경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설충수. 「『만국공보(萬國公報)』에 나타난 19세기 중국 개신교인의 신명(神名) 문제」. 『장신논단』 40 (2011): 143-166.

심상태. 『한국교회의 토착화 신학』. 화성, 서울: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16.

안성호. 「존 로스의 중국유교 원시유일신론과 중국어 성서번역의 용어 논쟁에 관한 신학적 입장」. 『한국기독교와 역사』 40 (2014): 219-238.

오동일. 「제임스 레그의 "역명 논쟁"과 중국 선교 이해」. 『선교와 신학』 51 (2020): 137-164.

옥성득. 『한국기독교 형성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_____. 『대한성서공회사 III (1945~2002)』.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_____. 『한국기독교 형성사-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이덕주. 『초기 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이장식. 「‘하나님’ 칭호의 신학적 근거」. 『기독교사상』 24/8 (1980): 126-133.

정진홍. 「‘하늘’님 考-deus otiosus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16/2 (1972): 122-129.

조성환. 『하늘을 그리는 사람들』. 고양시: 소나무, 2022.

조지훈. 『한국문화서설』. 조지훈전집 7. 서울: 나남출판사, 1996.

최정호, 이태원 공편. 『하늘과 한국인의 삶』. 서울: 나남출판사, 1997.

최현배. 「기독교와 한글」, 『신학논단』 7 (1962): 51-76.

토마스 아퀴나스. 『사도신경 강해설교』. 손은실 역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4쇄).

하마지마 빈. 「귀츨라프역 일본어 요한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번역어 재고」. 김남구 옮김. 『성경원문연구』 38 (2016): 246-252.

한국종교연구회. 『한국 종교문화사 강의』. 서울: 청년사, 1998.

Baker, Don. “Hananim, Hanunim, Hanullim, and Hanollim: The Construction of Terminology for Korean Monotheism”.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5/1 (2002): 105-131.

Chung, David. Syncretism. *The Religious Context of Christian Beginnings in Korea*.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Clark, Charles Allen. *Religions of Old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61.

Cross, F. L. and Livingstone, E.A. (ed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Gale, J. S. “Korean Ideas of God”.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23-9 (Sept., 1900).

_____. “Korea’s Preparation for the Bible”. *The Korea Mission Field*, Mar., 1912.

_____.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Layman's Missionary Movement, 1909.

Girardot, Norman J., *The Victorian Translation of China: James Legge's Oriental Pilgrimag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Golden, S. “‘God’s Real Name is God’. The Matteo Ricci-Niccolo Longobardi Debate on Theological Terminology as a Case Study in Intersemiotic Sophstication”. *Translator* 15/2 (2009): 375-400.

Hulbert, H. E. *The Passing of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69. Original publication: London: Wm. Heinemann, 1906.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 & The Pontifical Council of Promoting Christian Unity. *From Conflict to communion : Lutheran-Catholic common commemoration of the Reformation in 2017*.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3.

Maximus Confessor. *Expositio Orationis Dominicae*, PG 90; *La philocalie présentée par Olivier Clément. Les écrits fondamentaux des pères du désert aux pères de l'Eglise (IV-XIV siecle)*. Paris: Desclée de Brouwer, 1995.

Paik, L. George.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Pyeng Yang: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1929.

Poupard, P. (directeur de la publication). *Dictionnaire des Religion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4.

Ricci, Matteo. *Le sens réel de "Seigneur du Ciel"*. Paris: les belles lettres, 2013.

Ross, J. *History of Corea, Ancient and Modern*. London: Elliot Stock, 1879.

Smart, N. *The World's Religions. Old Traditions and Modern Transformations*. Cambridge, New York et alib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Wittgenstein, L.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anslated by G. E. M. Anscombe. New York : Macmillan, 1968.

Abstract

Revisiting the Controversy on the Divine Name “Haneunim” vs “Hananim”

: A Suggestion for Unifying Christian Terminology in Korea

Son, Eunsil (Seoul National Univ.)

When Christianity was introduced to the East Asian Sinosphere, there were many controversies over the translation of the divine name due to the clash between the traditional idea of God and the Christian concept of God. In Korea, the Chinese Catholic translation, “Tianzhu” (天主=Lord of Heaven), was used in the Catholic Church while God was translated into “Haneunim,” “Hananim,” or “Hanănim” in the Protestant Bible translation. Although the *signifiant* of these three terms is different, the *signifié* is the same, meaning “Lord of Heaven,” to which the meaning of “One Lord” would be added after some time. Then, in 1977, when Catholics and Protestants published a Common Bible Translation, God was translated into neither “Tianzhu”, which was used by Catholics, nor “Hananim” (meaning One Lord in modern speech), which was used by Protestants, but a third alternative, namely, “Haneunim” (meaning Lord of Heaven). Anglicans, Catholics, and Orthodox Churches have been consistently using “Haneunim,” while Protestants reject this solution and continue to use “Hananim.” Regarding the problematic situation of Korean Catholics and Protestants giving different translations for many Christian terms, including the divine name, I try to show in this study that “Haneunim” can be a better term than other translations of God, hoping that the unification of the divine name as “Haneunim” will serve as an impetus toward further

unification of Christian terminology in Korea. To this end, I revisit controversies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divine name and argue for the option of “Haneunim” from several different perspectives: ecumenical, trinitarian, religio-historical, translative (in particular, from the audience’s point of view), and cultural-historical.

Key Words: divine name, Haneunim, Hananim, unification, Christian terminology, Korean Christianity, ecumenism